

- [교회 표어] · 은혜충만 · 진리충만
- [교회 3대 목표] ·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 [성도생활의 목표] ·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 산본, 포일, 부곡	수원, 영통, 진위, 전원, 동탄, 안중, 평택, 용인, 남양, 을지, 전주요자	안산, 시화, 시흥, 인천, 부천, 부평, 영종도	과천, 판교, 강남, 구리, 광주	광명, 영등포, 원주, 천안	일산, 김포, 장유, 전주평화	수원, 양주, 서산, 당진	수원, 대구, 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주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2944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 봉사, 선교기관 소개 ① 남성봉사연합회

남성봉사연합회는 남성 성도들의 봉사기관으로, 각 성전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안내하고 새신자들의 결신을 도우며, 교통 안내 등 예배와 행사 참석을 위해 교회에 오는 분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이와 함께 각 성전과 전원성전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성회와 행사의 준비와 원활한 진행 및 마무리를 위한 다양한 봉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밖에 성찬식과 물세례식 등의 성례가 은혜롭게 거행되도록 봉사하며 교회당 안팎을 아름답게 꾸미고 청결케 하는 일도 연합회의 주요한 직무입니다.

남성봉사연합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부서와 직무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 봉사부에서는 예배 안내와 질서 유지, 노약자 성도 보호 및 횡단보도 등 교회 주변에서 성도들과 차량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출입을 돕습니다.
- 전도부에서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공공장소에서의 노방전도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 심방부는 병원에 입원중인 성도와 재난을 당한 성도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소망을 주는 일을 합니다.
- 교통부에서는 교통질서 안내 및 지도와 함께 교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교회 시설관리위원회에 협력하여 교회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며 정리 정돈합니다.

그 외에 회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지원하는 의례부를 비롯 기획부, 지원부, 홍보부 등이 본부 부서로 조직되어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연합회의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정기적인 월례 기도회와 분기별 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여러 은혜로운 모임을 통해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남성봉사연합회에서는 봉사 부서가 없는 남성 성도님과 특히 젊은 성도님들의 봉사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봉사 문의 : 각 성전 남성봉사연합회, 교구실

교회 중·고등 학생 <자율학습 비전스쿨 : 온라인 ZOOM 독서실>

①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학생 모집

- ▶대상: 자율학습을 원하는 우리교회 중·고등부 학생 누구나
- ▶장소: 각자 방 또는 독서실에서 ZOOM 온라인 모임 링크로 접속
- ▶방법: 멘토 봉사자와 온라인 ZOOM 공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입시·신앙 상담, 모르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다.
- ▶일시(2차): 4월 3일(월) ~ 4월 21일(금)까지 (※3차는 5월 1일 ~ 5월 26일까지 예정)
평일- 오후 7시~10시/3시간, 수요일- 9시~11시/2시간 (이후 12시까지 자율학습 가능)

- ▶모집기간: 상시 모집 (신청자에게 줄링크 개별공지)
- ▶문의: "자율학습 비전스쿨 온라인 ZOOM독서실" 담당자 ☎ 010-5395-0939, 010-9175-2356)
- ▶신청방법: 아래 QR코드 접속 후 신청

②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봉사자 모집

- ▶대상: 위와 같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자율학습 지도가 가능한 성도님
- ▶신청방법: 위와 동일한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

은혜와진리소식

2023년 3월 2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1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편과 저에게 장로와 권사의 귀중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 김용숙 -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 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1:6,7). 아멘.

저희 부부는 1984년에 결혼을 하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에 군포시 금정동으로 이사를 와서 은혜와진리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사 온 후 다닐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은혜와진리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교인들이 하나같이 이웃에 대하여 사랑이 많고 착하고 성실하며, 교회와 당회장 조 목사님에 대하여 자부심이 대단하고 교회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1988년 가을에, 갑자기 복수가 차서 이유를 알기 위해 병원에 갔으나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결과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항암과 다른 치료를 받던 중에 난소에 이어서 자궁까지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신생활 중인데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였습니다. 당시에 아기가 없어도 앞으로 제가 건강해서 주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며 저를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준 남편

이 지금 생각해도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그 후 우리 부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저는 아침 일찍부터 만나실에서 종일 봉사자들의 식사를 위해 성심성의껏 일하면서 그처럼 주님의 일을 즐겁게 행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같은 시간 남성봉사연합회에서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늘도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며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그 어떤 일에서도 누릴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저에게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닥쳐왔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이번에는 유방암이 발병하여 또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호와 리과의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고 저를 도와주시므로 이번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찌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찌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함께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편 27:1~4)

그 아프고 힘겨운 수술과 치료를 받는 중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이 녹음된 테이프를 통해서라도 빠짐없이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남편과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결코 치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유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하며 저를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준 남편

곁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시편 23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곧 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저는 곧바로 주일 아침에 다시 만나실로 향했습니다.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수술을 받고 어찌 또 금방 봉사하러 나왔느냐, 아직은 치료와 회복에 힘써야 하지 않느냐”고 하며 만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내 봉사하는 자리를 다른 분에게 빼앗길까 봐 조바심이 나서 열린 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유방암 역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 때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치유를 확신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저에게 귀중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부부 남편과 교회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러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이사야 46:4). “우리의 소망이나 구원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감람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데살로니가전서 2:19). 아멘.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교 대한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길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원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하안로 254 (하안동) T.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천천동) T.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신촌: 군포시 신촌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동동) T.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안정동) T.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8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정기동) T.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달1로 144 T.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명학):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광복로12길 8-2 T.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복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산성: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39-11(광동동) T.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등: 인천광역시 중구 옛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두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흥로102번길 56(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정안구 하물로 55(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홍성동) T.054-772-7867
- 이산: 충남 아산시 여치읍 병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경기도 안성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은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21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274장(새찬송가 497장)

“누가복음 12장 13절~21절 강해 설교”

미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무지가 낳은 오해를 지적 하셨습니다. 그 무지란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오해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도 수습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해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와 무지와 어리석음은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에게로 와서 “랍비님, 저희는 랍비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니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심중을 환히 꿰뚫어 보시고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듣게 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토대에 들어갔다 날 수 없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4-17)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돈 버는 비결을 물었다면 그도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사업경영 상담 전문가로 세웠느냐?”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제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십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 2절) 하였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종교, 철학, 사상, 학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이 잘 된 여러분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대하고 급선무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영혼이 잘 되는 길에 대하여 알고 있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시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설교자를 통하여 영혼이 잘 되는 길에 대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누구든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얻게 되기 전에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판단해 버립니다.

복음을 들어야 영적 무지를 면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도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한 때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 스승에게서 배웠지만 구세주에 대하여는 무지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웠지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회를 핍박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성에 피신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오의 태양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는 가운데 땅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영적 무지를 벗게 되었습니다. 오해는 말씀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하여 주십시오.”하는 것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돌하게 나서서 가망많은 요청을 한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귀중한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소유의 풍성함이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연장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유의 풍성함이 오래 사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진시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을 이를 입증하는 예로 듭니다.

진시황제는 열세 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39세에는 천하를 평정하여 거대한 통일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진시황제는 영화를 지속하여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불로장수(不老長壽)를 도모하였습니다. 진시황제는 불로초(不老草)를 구하려고 신하들을 사방에 보냈으나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제나라 출신의 서복(徐福)은 진시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삼신산(三神山)에 신선이 사는데,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데리고 가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러자 진시황제는 크게 기뻐하여 수천 명의 동남동녀들을 뽑아내고 많은 재물을 배에 실어 주며 바다로 나가 신선을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2년에 걸쳐 두 번의 여행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제의 주치의들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 온갖 처방을 했습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진시황제는 결국 49세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쳐 방대한 영토를 점령하였습니다.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한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죽거든 관 옆에 구멍을 뚫어 두 손을 내어 놓도록 하라는 유언을 하였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었지만 죽어서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대여 이런 예를 들지 않아도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오래 산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섭취와 의료혜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재물이 수명연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대는 의료 기술과 의료 기기와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생명’이란 육체의 생명 이상을 말합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생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육신의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를 지독하게 미워하였습니다. 하루는 ‘본나’라는 신부를 불러 칩사로 프랑스 궁정에 보내어 위협하는 말을 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명령을 받은 본나는 떨면서 말하기를 “만약 폐하께서 하시라는 대로 제가 프랑스 왕에게 말했다가는 제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헨리 8세는 “그것만은 안심하십시오. 만일 프랑스 왕이 경을 사형에 처한다면 짐은 프랑스 사람을 있는 대로 모조리 잡아다가 목을 자르겠소.”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그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폐하”하고 본나는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영국 어디를 가서 찾아도 이 머리처럼 저의 목에 맞는 머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왕이나 독재자들은 자기 생명만 소중한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육체의 생명 이상을 말합니다. 영혼을 의미하며 영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말씀에는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영생 얻는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는 교훈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 농사가 잘 되어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니, 부자는 심중에 골똥히 생각하며 곡식을 저장할 방법을 궁리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어 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워하라.’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하였다.”라는 비유를 무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며 본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그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부자가 되려면 그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재산을 늘려 나갔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증대시켜

나갔으며 그가 수확한 곡식을 제 때에 좋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해 창고를 짓고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업적인 두뇌와 능력이 있었습니. 처세에 능한 자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가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의 외면적 풍부함과 화려함에서 눈을 돌려 그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는 것보다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적용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부자는 그가 가진 소유물로 얼마든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내시면 곧장 시체가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습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영혼이 계속 육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있어서 소유의 넉넉함이란 무용지물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 다음에 첨가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부유한 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기주의의 일반도로 살았습니다. 이기주의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헌신과 희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생명을 던져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희생적 행위조차도 숭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과 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성적 존재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개성을 말살시키는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도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에서는 통치자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합니다. 개체로서의 작은 자아가 자연 또는 신 혹은 무엇이라고 부르든 큰 것에서의 합일기에 이르러 자기사실의 경지에 이르기를 회귀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나 철학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개성은 멸절하지 아니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출 3:6)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며 또한 각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무인고도에서 홀로 살고 있다면 이기주의라는 말이 무의미합니다. 이기주의란 다 외의 다른 인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인격적 존재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를 알면 이기주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의시키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의시키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역시 이기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워하자 하리라...”(눅 12:17-19).

이기주의자는 하나님의 소유권이나 은총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리고 ‘내가, 내가, 내가’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자만(自慢)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좌절감에 빠지거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이것저것 소유가 늘어나게 되니 신앙생활에 나타내지거나 타락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유했던 것을 잃게 되면 좌절하고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소유 그 자체가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그 소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에 변화가 있어도 삶의 자세나 신앙은 요동치 않습니다. 이런 신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고, 소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을 영구하고 더 큰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전파를 위해 가진 것으로 헌신봉사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서 살펴본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야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일뿐입니다.

②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에서 소유의 넉넉함과 영생과는 무관하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영생의 생명은 소유의 풍성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다 해도 사들의 정체를 드러내어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되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어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③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소유하게 되는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되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어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성도답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